

오코쿠메 (Okokume)

《마음 타이즈(Maeum Ties)》

오코쿠메의 작품은 팝 초현실주의와 감성적 추상의 생동감 넘치는 융합을 구현하여 신비롭고 내면적인 세계를 창조한다. 이번 컬렉션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작품은 순수함과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포착한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과 강렬한 붉은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는 몽환적인 구성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우주에 몰입하게 한다.

오코쿠메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드러운 영혼’의 캐릭터는 내면의 성찰을 위한 거울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종종 얼굴이 없거나 어린아이 같은 특징으로 장식된 그녀의 인물들은 보는 사람의 감정적 투영을 위한 여지를 남기며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그녀의 붓놀림의 유동성은 움직임과 변화를 상징하며, 정체성과 감정의 일시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이 시리즈는 거의 촉각적인 에너지로 진동하며, 의도적으로 겹겹이 쌓고 흘러내린 페인트는 삶의 유한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불완전함과 유동성을 강조한다. 오코쿠메의 예술은 ‘피난처’이자 ‘도전’으로 존재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더 깊고 약한 내면을 마주하도록 하는 동시에 위안을 제공한다.

경직된 구조와 정형화된 내러티브에 압도된 세상에서 오코쿠메는 불명확성을 포용하고 모호함을 소중히 여기며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녀의 예술은 보편적인 것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연결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경이로움과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언어를 이끌어낸다.

아프로뎃 주리(Afrodet Zuri), 아티비스트 레지던시 큐레이터